

남북한 간호학용어의 비교분석

김인숙*, 이희정**, 고일선***, 강경화****, 장윤경*****

<국문요약>

남한과 북한의 간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통일 국가를 대비하는 간호계의 세계시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국어정책과 간호학 용어에 대한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일반 간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간호 관련 용어목록을 만들고 남한의 기본간호학 및 임상간호학 교과서에서 이에 해당하는 남한 용어를 찾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의 편의상 영어 용어를 참고로 기재하였다.

남북한 간호용어의 비교 분석은 ‘한자어로 된 간호용어’, ‘순 우리말로 된 간호용어’, ‘외래어로 사용된 간호용어’,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로 달라진 간호용어’, ‘북한간호학의 특이성을 반영한 간호용어’의 여섯 가지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분단 이후 남북한이 모두 일본어 잔재를 몰아내려는 노력으로 남한은 ‘영어식 외래어’를, 북한은 ‘러시아식 외래어’를 도입하여 남북한 용어의 이질감이 고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의 자료 수집에 대한 어려움으로 연구에 제한점이 있었으나, 남한과 북한의 간호학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북한의 최근 간호용어와의 비교연구 뿐 아니라 간호학 교과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행하여 남한과 북한의 이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간호학분야의 세계시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언한다.

[주제어] : 남북한, 간호용어, 의학용어, 용어의 비교, 세계시민성

* 김인숙(주저자 Kim, In Sook E-Mail : iskim@yuhs.ac.)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간호대학 교수

** 이희정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고일선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강경화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 장윤경(교신저자 Jang, YounKyoung, E-Mail : healthinall@gmail.com)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논문접수일 : 2015년 4월 8일, 논문수정일 2015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24일

Comparison of Nursing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im, In-sook*, Lee, Hui-jeong**, Ko, Il-seon***,

Kang, Gyeong-hwa****, Jang, Yun-kyoung*****

<Abstract>

Over the past 50 years, there have been no cultural exchanges involving South and North Korean nursing professional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receptivity for global citizenship in nursing. This study was also performed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inology in nursing textbooks in use in the two countries. Nursing terminology found in three representative textbooks of basic and clinical nursing from those countries was analyzed in terms of origins of the words and meanings. The nursing terminology in use in those countries is distinguished by the use of six characteristics: 'Pure-Korean,' 'Sino-Korean,' 'loanword,' 'terminologies that have differences in orthography,' 'terminologies that show differences between Pyeongyang and Seoul language,' and 'terminologies that show different meanings between the two countries.' Pure-Korean and Sino-Korean terminologies displayed similari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nursing textbooks. However, many of the terms in North Korean nursing textbooks are loanwords from Russia and others were difficult to understand or are used differently from how they are used in South Korean nursing textbooks. In view of the mix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nursing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the nursing curricula in those two countries should be analyzed and compared for improving global citizenship in nursing.

Key Words: South and North Korea, Nursing terminology, Medical terminology, Comparison of terminology. global citizenship.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반세기가 넘게 분단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남과 북으로 분리되고 격리되어 왔다. 이 분단의 세월동안 우리 국어는 남북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구’라는 단어에 남한의 학생들은 ‘basketball’을 생각하지만, 북한의 학생들은 ‘농기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남북한이 별개의 언어 공동체를 구성하고, 각기 다른 국어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북한은 1945년 해방 이후 10년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준용한 이후 50년 중반부터 국어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이 시기,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단행된 북한의 간호학 교과서는 소련의 언어학에 영향을 받게 되고, 남한은 영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남기원·김하수 1989; 정유진 1997). 1954년 ‘조선어 신철자법’에 의해 ‘신자모 6자’를 창안하여 된소리를 사이표(·)로 표시하여 ‘깃발’을 ‘기·발’로 표기하는 등의 북한의 언어 연구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남북한의 언어 규범은 본격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66년 김일성의 교시 하에 ‘조선말 규범집’을 제정·공포하여 ‘문화어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후 70년 중반부터 규범집에 기초한 ‘문화어 운동’의 정착이 이루어졌다. 이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 하에 발음, 억양, 문법, 어휘를 국어의 고유 어근에 따라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연구 활동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과 더욱 차이

가 나는 ‘주체 사상적 언어’가 정립되어 왔다(남성우·정재영 1990; 김민수 1985).

남한과 북한의 간호학 및 의학용어도 각기 다른 국어 정책 하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학 분야는 90년 초부터 남북한 의학 용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허진영 2000) 반면, 간호학 분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인구학적인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연구들(임경순·김정남·박경민 2001)이 진행되었지만, 남북한의 간호학 용어에 대한 비교 연구가 전무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혈통, 말, 문화’의 세 가지 요소가 같은 한민족이지만, 오랜 기간의 분단과 정치적·이념적 대립 속에 말과 문화의 이질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간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없이는 이질화는 더욱 가속되어 앞으로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인종, 국가, 종교, 교육수준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인류 모두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이의 건강(Health for All)’을 세계적 전략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로 발전해 왔다. 즉,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체제나 인종 등의 특수성을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간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분단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계의 세계시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국어 정책과 언어관에서

기인된 간호학 용어의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북한의 간호학 용어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남한과 북한의 간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하는 세계시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북한의 일반 간호학 관련 용어목록을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남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의 편의상 영어 용어를 참고로 기재하였다. 북한의 용어는 ‘일반 간호학’(의학출판사 1964)에서 선택하였고, 남한은 ‘기본 간호학’(양선희·손영희 외 2009a, 2009b; 장성옥 2007; 김순자 2001) 교과서에 기재된 용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인 남북한 용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두 곳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350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남북한 용어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일반

간호학’ 전 범위에서 약 1500여 단어를 발췌하여 엑셀 프로그램에 ‘가나다’ 어휘순으로 정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남한은 약 1000여 단어를 발췌하였다. 단, 남한의 경우 먼저 발췌된 북한의 단어와 비교 분석이 가능한 단어 위주로 선별하였기 때문에 어휘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다시 북한의 용어는 간호학 용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편의상, 명사를 중심으로 분류하면서 중복된 어휘, 형용사, 동사는 제외하였고, 분류된 명사 중 판독이 불가능한 남한과 북한의 용어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분류하고 제외한 이유는 북한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의 용어와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류된 북한의 총 800여 단어는 다시 남한의 용어와 비교하면서 어휘가 일치하고 분석이 가능한 단어들로 분류하였고, 이 단어들 중 연구의 편의상 중복되는 합성어들을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반응’과 ‘반응성’은 ‘반응성’만 ‘호상’과 ‘호상 관계’는 ‘호상’만 선택하는 식으로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용어는 간호학의 특성에 맞게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진단명, 증상, 물품, 간호 및 진료 행위 그리고 행정적 수속과 관련된 용어들로 분류되었고, 그 결과 총 350개의 남북한 단어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선정된 남북한 용어는 국어사정위원회(2000)의 ‘조선어문’에 제시된 언어 양식에 따라 본 연구도 ‘한자어(Sino-Korean words)’, ‘순 우리말(Pure Korean words)’, ‘외래어(loanword)’, ‘남북한 맞춤법’ 그리고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추가로 ‘북한만

의 간호학적 특이성을 반영하는 용어'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III. 연구결과

남북한의 간호학 용어는 한자어, 순 우리말 그리고 외래어로 분류하여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맞춤법과 표기법의 차이가 있는 용어를 각각 분류 분석했고, 서울과 평양말의 차이를 보이는 용어를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간호학이 가지는 특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남한과 다르게 정의되는 용어들과 간호물품 및 치료와 관련된 용어들을 각각 비교 분석한 6가지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1. 한자어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간호학 용어는 남북한 모두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남북한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용어들은 같은 한자어 표기를 하고 있었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한자어는 생략하기로 하고,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남북한 한자어의 사례는 <표1>에서 제시하였다.

2. 순 우리말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순 우리말로 된 남북한의 간호학 용어는 '남북한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표기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한 쪽만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남북한 모두 간호학에 있어서 광범위한 한자어를 사용한 반면, 순 우리말을 사용한 경우는 '신체부위'를 표현하는 용어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용어들은 상당 부분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2>에서 제시하였다.

3. 외래어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북한은 간호 및 의료 용품을 표기하기 위해 남한과 마찬가지로 많은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임상학적 검사 용어도 외래어로 표기한 것이 많았다. 이 외래어 표기는 남한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과 너무도 다르게 사용되는 생소한 표기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후크신', '겐치아나비올레트', '이리게타', '만드렌', '카뉴레', '포팅의 흡출장치', '레오노브의 흡출장치', '티몰반응', '다까다반응', '말테인반응', '와쎌르만 반응', '렌트겐', '테찌친' 등의 용어들이 있다. 이 용어들은 연구 자료의 본문을 읽어 볼 때 대충의 의미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남한의 용어와 비교하여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 외래어 표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남한의 용어와 비교 분석한 내용은 남북한 모두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남북한 중 한 곳에서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내용은 <표3>과 <표4>에서 제시하였다. 이 중 남북한 모두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언어표기의 특징에 따라 '자모

<표1> 한자어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headache	전두통	두통	perforation	천통	천공
intestinal obstruction	장불통증	장폐색증	puspen	농반	곡반
stuper	혼몽	혼미	suctioning	흡출	흡입
chill phase	분리기	발한기, 오한기	pharmacy	제제실	조제실
fever phase	고열기	발열기	mixing	혼입	혼합
remittent fever	부정열	이장열	position change	방산	전위
normal pulse	규칙맥	정상맥박	relaxation	소퇴	완화
tachycardia	속맥	빈맥	movement	윤동운동	연동운동
bradycardia	지맥	서맥	subcutaneous tissue	피하직하	피하조직
systolic blood pressure	최고혈압	수축기혈압	basophils	간상핵증형 기호구	호염기구
diastolic blood pressure	최저혈압	이완기혈압	neutrophils	분엽핵증성 기호구	호중구
paroxysmal dyspnea	호흡축박	발작성호흡	retension enema	보류관장	정체관장
stomach cramp	위동통	위경련	medicated enema	약물관장	투약관장
halitosis	취기	구취	hot & cold therapy	암법	온냉요법
paralysis	지각둔마	지각마비	palpation	촉지	촉진
gastroptosis	장관하수	위하수증	mineral matter	무기린	무기질
flushing	조홍	홍조	registration form	등록정형	등록형식

<표2> 순 우리말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분류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The same type	face color	얼굴색	얼굴색
	gait	걸음걸이	걸음걸이
	delirium	헛소리	헛소리
	pus	고름	고름
	fingers	손 '가락	손가락
	lips	입술	입술
	tiptoe, tip of the toes	발끝	발끝
	palm of the hand	손 '바닥	손바닥
	throat	목 '구멍	목구멍
	smell, odor	냄새	냄새
	eye discharge	눈 '곱	눈곱
The differential type	nasal mucus	코 '물	콧물
	heartburn	가슴쓰리기	가슴앓이
	hair	머리 '가락	머리카락
	earhole	귀 '구멍	귓구멍
	rounded sides of the nose	코 '날개	콧방울
	front tooth	앞 '이	앞니
	gums	이 '몸	잇몸
	tooth	이 '발	이빨
	interval of tooth	이 '발틈	이빨틈
	elbow	팔 '꿈치	팔꿈치
	color	색갈	색깔
Be used only in one side	sharp pain	자통	찌르는 통증
	driveling	류연	침흘림
	sleep talking	섬어	잠꼬대
	grief	비애	슬픔
	lemon yellow	밀짚색	담황색
	abscess	고름집	농양
	chewing	씹기	저작
	suture	꿰매기	봉합

<표3> 외래어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구분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The differential type in vowel or consonant	anaphylaxis shock	아나필락시아양쇼크	아나필락시스속
	vaselin	와셀린	바셀린
	poster	포스타	포스트
	massage	마짜지	마사지
	urobilin	우로빌린	뉴로빌린
	creatinine	크레아치닌	크레아티닌
	alcohol	알콜	알코올
	gauze	가제	가아제
	curtain	카텐	커튼
	catheter	카테테르	카테터
	allergy	알레르기아	알레르기
	insulin	인슐린	인슐린
	calcium	칼시움	칼슘
	potassium	칼리움	칼륨
	beaker	비카	비커
	litmus	리트무스	리트머스
add in or fall out sounds	clip	그리뵈	클립
	pincet	핀세트	핀셋
	shock	쇼크	속, 쇼크
	cup	고뿌	컵
	mattress	마드라스	매트리스
	label	레테르	라벨
	virus	비루스	바이러스
	alkali	알카리	알칼리
the differential type in forigen words	nylon	나이론	나일론
	gastric feeding tube	위존데	위관영양 튜우브
	big gastric feeding tube	굵은존데	굵은 위관영양 튜우브
	small gastric feeding tube	가는존데	가는 위관영양 튜우브
	basket	바께쯔	바스켓
ampulla of vater	파테르유두	바터팽대부	

<표4> 남북한 중 한 곳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용어 비교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sheet	백포	시트
eosinophil	에으진 기호구	호산구
chlor	클로르	염소
hepatitis	보뜨끼병, 간염	간염
back massge	안마	등마사지
dressing	붕대교환	드레싱
cyanosis	치아노즈	청색증

<표5> 남북한 맞춤법 표기가 다른 용어 비교

구분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The difference of '폐' orthography	pulmonary edema	폐수종	폐수종
	pulmonary tuberculosis	폐결핵	폐결핵
	pulmonary distoma	폐디스토마	폐디스토마
	pulmonary hemorrhage	폐출혈	폐출혈
	emphysema	폐기종	폐기종
The difference of inscription of pronunciation	diabetes insipidus	뇨붕증	요붕증
	urethral stenosis	뇨도협착	요도협착
	medical examination	림상검사	임상검사
	uremia	뇨독증	요독증
	urate	뇨산염	요산염
	phosphate	린산염	인산염
	ovary	란소	난소
	costal arch	룩골각	늑골각
	fistula	루공	누공
pleurisy	룩막염	늑막염	
The difference of '사이시옷' orthography	gums	이'몸	잇몸
	toothbrush	치'솔	칫솔
	ridge of the nose	코'등	콧등
	nostrils/earhole	코'구멍/ 귀'구멍	콧구멍/ 귓구멍
	auricle	귀'바퀴	귓바퀴
The difference of the principle of root first	dysphagia	연하곤난	연하곤란
	chemotheraphy	화학료법	화학요법

음이 다른 경우’, ‘음의 첨가와 탈락이 있는 경우’, ‘서로 전혀 다른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4. 남북한의 맞춤법 표기가 다른 용어

남북한의 용어는 맞춤법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였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폐표기법’, ‘두음법칙’, ‘사이시옷¹⁾’의 사용법 차이였고, 그 외 북한의 ‘형태주의’ 원칙에 따른 맞춤법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내용은 <표5>에서 제시하였다.

5.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로 용어가 달라진 경우

서울말과 평양말을 각각의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확실히 용어 사용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세기 동안 각 지역 ‘방언’의 차이가 만들어낸 용어 차이들이지만, 용어의 주변 내용들을 읽고 유추한다면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예는 <표6>에 제시하였다.

1) 1954년 ‘조선어 철자법’에 따르면, ‘사이시옷(ㅅ)’ 대신 ‘사이표(ˊ)’를 사용하였으나, 1987년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긋밥-귀밥’, ‘찾집-차집’과 같이 아무 표시도 하지 않거나,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 비바람(비와 바람)’과 같이 사이시옷을 사용하여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등의 사잇소리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어정책사업 2기(1954년-1966년)시기에 출간된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이표(ˊ)’가 사용되었다.

<표6>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로 달라진 용어 비교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pancreatitis	취장염	췌장염
anus	홍문	항문
palpation	촉지	촉진
advantage	우점	이점
buttock	엉덩이	엉덩이
upper	우	위

<표7> 남한과 정의가 다른 북한 간호학 용어

	영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The same type of definition	mild fever	미열	미열
	constant fever	계류열	계류열
	intermittent fever	간헐열	간헐열
	septic fever	소모열	소모열
	relapsing fever	재귀열	재귀열
The difference type of definition	high fever	중증도열	고열
	hyperthermia	고열	과열
	over 41℃ body temperature	초고열	41℃ 이상의 열
	remittent fever	부정열	이장열

<표8> 간호물품 및 처치와 관련된 간호용어의 비교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영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ice bag	어름주머니	얼음주머니	transfer	운반법	옮기기
hot water bag	온낭	더운 물주머니	p.o medication	내복약	경구약
cold compress	랭습포	냉습포	artificial catheterization	도뇨카테테르 삽입법	인공도뇨법
needle	주사침	주사바늘	relaxation	쓰다듬는법	이완법
gauze	가제	가아제, 거즈	frictioning technique	마찰하는법	경찰법
purpen	농반	곡반	kneading technique	비트는법	유날법
mattress	마드라스	매트리스	slapping technique	두드리는법	경타법
blanket	포단	담요	vibrating technique	전진-진동법	진동법
sheet	백포	시트	shower	관수욕, 샤워욕	샤워
toilet	변소온수통	수세식변기	cold sponge bath	랭수암주법	냉스펀지욕
proctoscope	홍문경	항문경	clothing change	내의교환	환의교환
filter paper	려과지	여과지	position exchange	체위변동법	체위변경
piston	비스톤	내관	nursing history	관찰방법	간호력
nasogastric feeding tube	비존데	비위관영양 튜우브	health examination	진단방조사업	진단법
pincet	핀셋	핀셋	subcutaneous injection	피하주사	피하주사 (상박부위)
name plate	섭생포	이름포	subcutaneous injection	대량피하주사	피하주사 (대퇴부위)
specimen	가검물	검체물	intramuscular injection	근육내주사	근육주사
sputum collection	가래채집	객담수집	intravenous injection	정맥주사	정맥주사
blood sampling	채혈법	혈액채취법	consult paper	파송증	의뢰서

6. 북한 간호학의 특이성을 반영한 용어

1) 남한과 정의가 다른 간호학 용어

북한은 '활력 징후'를 '신체 반응'이라고 칭하였고,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의 측정에 대한 정의와 간호 행위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 중 체온을 제외한 활력 징후들의 용어들은 한자어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앞의 <표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빈맥'과 '서맥'을 '속맥'과 '지맥'으로도 표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체온의 분류 기준과 그 정의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있었다. 'high fever'를 남한은 '고열', 북한은 '중증도열'로 정의하고 있으며, 반면 'hyperthermia'를 남한은 '과열', 북한에서는 '고열'로 정의하였다. 즉, 남한과 북한은 '고열'의 정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었으며, 'hyperthermia(38~41°C)'의 경우도 북한은 '고열'과 '초 고열'의 두 단계로 분류하여 '41°C 이상의 열'을 '초 고열'로 정의하는 차이를 보였다. 발열의 정의는 남북한 모두 비슷한 의미로 그 용어들이 사용되었지만, 북한의 경우 '파상열'은 '재귀열'보다 서서히 발열과 정상 체온의 주기가 반복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발열로서 남한은 이 또한 '재귀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같은 용어가 없었다. 이상 남북한의 체온과 발열에 대한 용어 분석은 <표7>에서 제시하고 있다.

2) 간호물품 및 처치와 관련된 용어의 비교

남한의 '기본 간호학' 그리고 북한의 '일반 간호학'에서 사용되는 간호 물품과 처치 관련 용어들은 표기법과 표현법 모두가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았던 것에 반해 서로의 차이가 커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들도 많았다. <표8>은 남한과 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간호 물품 및 처치 관련 용어들을 제시하였다.

3) 남한과 다른 이념 체계를 반영하는 용어

대상자의 정신적 안정을 고취시키는 간호 활동에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건설적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인민', '동지', '똥지력', '육친적' 그리고 '자력갱생'의 용어들이 그 예이다. 남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서적 지지 및 안정에 필요한 간호 활동에 상당히 호전적 의미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IV. 논의

북한의 간호학 용어는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표기가 많았다. 한자어는 남한의 용어와 비슷한 표기법을 따르고 있으며, 북한의 표현법에 따라 남한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용어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오한기'는 '분리기', '완화'는 '소퇴', '호염기구'는 '간상 핵증형 기호구', '온 냉요법'은

‘암법’, ‘장 폐색증’은 ‘장 불통증’, ‘정상 맥박’은 ‘규칙맥’, ‘지각 마비’는 ‘지각 둔마’, ‘홍조’는 ‘조홍’, ‘연동 운동’은 ‘운동 운동’ 그리고 ‘촉진’은 ‘촉지’로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비판하고 독자적으로 공포한 ‘조선어 신철자법’에 따라 한자어 한글 표기 및 표현법에 있어서 남한과 차이점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한자어는 조선 인민 사이에서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를 선택하여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자어가 남한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이유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성우·정재영 1990).

이러한 현상은 순 우리말의 표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순 우리말은 ‘얼굴’, ‘눈’, ‘코’ 그리고 ‘입’ 등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용어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다만, ‘사이시옷’ 사용법에 의해 합성어가 되면 남한과 용어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콧물’은 ‘코·물’, ‘귀구멍’은 ‘귀·구멍’ 그리고 ‘잇몸’은 ‘이·몸’과 같이 달리 표기되었다. 또는, 완전히 남한과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콧방울’은 ‘코·날개’, ‘가슴 앓이’는 ‘가슴 쓰리기’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 순 우리말 사용은 남북한 한쪽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담황색’을 ‘밀짚색’, ‘농양’을 ‘고름집’ 그리고 ‘봉합’을 ‘ 꿰매기’와 같이 북한에서만 순우리말을 쓰는 경우 또는 ‘잠꼬대’를 ‘섬어’, ‘침흘림’을 ‘류연’과 같이 남한에서만 순우리말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이 대동소이하게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에는 한 가지 제한점이 따

른다. 북한 연구 자료인 ‘일반 간호학’은 1954년 ‘조선어 신철자법’이 공포된 북한의 ‘제 2기 언어 정책 시기’에 편찬된 교과서이다. 최근 편찬된 남한의 ‘기본 간호학’ 교과서와 비교하기에는 시기별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실제 오늘날의 북한 간호학과 비교할 때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허진영(2000)은 남북한 ‘치의학 용어’를 비교하면서 1996년 이후 남한은 순우리말 사용이 제외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기초와 임상 치의학 전 분야에서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문화어 운동’이 전개된 1966년 이후 북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간호학 용어도 1966년 ‘문화어 운동’ 이후부터 편찬된 교과서를 토대로 비교 분석한다면 순우리말 사용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가 본 연구와는 다르게 분석될 것으로 사료된다.

박형우·여인석 외(1995)는 북한의 의학 서적들은 1950년 이후 ‘러시아식 외래어’가 상당수 도입되었고, ‘조선말 규범집’에 따라 1980년 이후 순우리말로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식 용어가 1990년 이후에도 혼용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를 봐도 ‘러시아식 외래어’가 상당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들의 사례는 앞의 연구 결과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외래어는 북한 용어에 대한 이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입장을 바꿔서 북한이 남한의 외래어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다. 분단 이후부터 남북한이 모두 일본말 잔재를 몰아내려고 노력한 결과 그 공백을 서구식 외래어가 차지하

게 되었다. 남한은 ‘영어식 외래어’를 북한은 ‘러시아식’을 도입하면서 남북한 용어의 이질감은 더욱 고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하수 1993). 1984년 ‘고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외래어의 원음 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북한 외래어의 공통성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정착된 러시아식 북한 간호학 용어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줄여 나갈지 통일을 위한 어휘 및 언어 정책의 해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는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이므로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사이시옷’ 사용법의 차이, 북한의 원형대로 표기하는 원칙의 차이, ‘두음법칙’의 인정 여부, ‘폐’와 ‘폐’의 표기 차이는 언어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의 언어학자들 간의 노력을 통해 ‘통일 맞춤법 제정’, ‘통일 국어사전 편찬’, ‘표준 발음법 제정’ 및 ‘규범 문법’을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사안으로 보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김민수 1985; 허진영 2000; 남성우·정재영 1990).

북한은 1966년 김일성이 지시한 ‘문화어 운동’을 통해 평양의 방언을 표준어 즉 ‘문화어’로 삼았다. 이는 또 다른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만들었다. 이들 용어 자체는 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분단 초기엔 ‘중부 방언’인 ‘서울말’을 표준말로 규정하였으나 북한의 인민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것이다. 이는 비록 간호학 용어간의 이질감과 상관없이 하더라도, 언어의 내적인 명분으로 볼 때 우리말의 역사적 정통성을 생

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김일성 1968; 허진영 2000).

북한은 학문적 특성에도 주체 사상을 담고 있다. 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에도 독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대한의학협회 1994). 결과에서 제시한 ‘체온과 발열의 분류 체계’와 용어 정의의 차이점을 봐도 그들의 교과 내용에 있어서 남한과 다른 독창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간호 물품과 처치 관련 용어들도 표기법과 표현법 모두가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심한 차이를 보이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들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북한 간호학의 사상과 이념이 남한과 무엇보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 행위를 ‘사업’으로 대상자들을 ‘인민’과 ‘동지’로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교과서의 전반에 걸쳐 느껴졌다. 예를 들어 이들의 호전적인 주체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용어로서 ‘진단법’을 ‘진단 방조사업’, ‘의뢰서’를 ‘파송증’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정치성과 사상성이 강한 주체 언어 이론이 간호학 분야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체근 1993). 그러나 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간호학 발전에 단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치도, 사상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체 사상의 확립을 위해 1966년 이후부터 시행한 ‘문화어 다듬기’, ‘어휘 정리’ 및 ‘단어 만들기 사업’은 어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남북한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물론, 남한의 언어도 북

한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외래어의 무비판적 수용을 통해 우리말을 오염시켜 왔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남북한 간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본 연구의 간호학 용어들은 1966년 이전에 편찬된 간호학 교과서인 점을 놓고 봐도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66년 이후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진다면 좀 더 많은 용어의 정확한 비교와 함께 분단 시기 동안 진행된 용어의 변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된 용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V. 결론

사상을 달리하며 지내온 반세기 동안 남북한의 언어는 그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한 표기와 표현의 차이를 벗어나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식, 태도 그리고 인성 및 사상에도 그 차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분석 자료의 부재였다. 반세기 동안 분단된 국가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은 북한 언어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게 하였다. 세계사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남북한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학이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받았지만, 이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북한은 관련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아니었다.

1954년 이후 진행된 ‘조선어 신 철자법’의 공포 하에 1964년 편찬된 북한 평양의 ‘일반 간호학’은 교과서 표기가 사이표(·)를 쓰고 있는 간호학 교과서이다. 즉, 본 연구는 북한의 국어 정책 사업 2기(1954~1966)의 시기에 사용된 간호학 용어를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인 것이다. 앞으로 ‘문화어 운동’이 정착된 북한의 ‘국어 정책 사업 3기와 4기’ 때에 편찬된 간호학 교과서를 분석하고 비교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이다(남기원·김하수 1989; 중앙정보부 1973).

또한 분석된 남북한 용어들은 비교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각 용어들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본문의 앞과 뒤 내용들을 읽고 유추하였고, 남한의 간호학 용어들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들을 정의하였다. 그럼에도 내용의 분석에 오류와 오역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 북한의 ‘문화어 운동’ 이후 편찬된 간호학 교과서를 자료를 분석하여 남한의 간호학 용어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간호학 용어 뿐 만 아니라 간호학의 교과 과정 및 내용에도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인 만큼 남북한 간호학 용어를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연구의 목적인 간호학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나아가, 통일 이후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의 이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간호학분야의 세계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KCS I

참고문헌

- 길혜금·김원옥·강정완·김광희, 1996, “남북한 마취과학 관련용어의 비교”, 『대한마취과학회지』 제30집 1호, pp. 31-40.
- 김민수, 1985, 『북한의 국어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순자, 2001, 『기본간호학』, 서울:수문사.
- 김일성, 1968,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평양 : 문화어학습.
- 김정남·박정민·임경순, 2001,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비교 고찰”, 『한국보건간호학회』, 제 15집 1호, pp. 182-201.
- 김주희, 1998, “남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 비교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제4집 2호, pp. 321-349.
- 김하수, 1993, “전문용어 제정과정에서의 언어적 문제”, 『대한의학협회 의학용어 세미나』, pp. 5-12.
- 남기원·김하수, 1989, 『북한의 말과 글: 북한의 문화어』, 서울: 을유문화사.
- 남성우·정재영, 1990, 『북한의 언어생활』, 서울: 고려원.
- 대한의학협회, 1994, 『대한의학협회 의학용어 세미나』, 서울 : 대학의학협회
- 박형우·여인석·노재훈, 1995. “북한의 의학서적”, 『대한의사학회』, 제4권 2호, pp. 175-177.
- 양선희 공저, 2009a, 『기본간호학 (상권)』, 서울: 현문사.
- 양선희 공저, 2009b, 『기본간호학 (하권)』, 서울: 현문사.
- 장성옥, 2007, 『기본간호학 이론서』, 서울 : 군자출판사.
- 정유진, 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언어: 북한의 말다듬기』, 서울: 태학사.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1984, 『고친 외래어표기법』, 평양: 문화어학습.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1988, 『조선말규범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어문, 2000,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 평양: 국어사정위원회.
- 중앙정보부, 1973, 『북한 ‘말다듬기’ 자료집』, 서울: 중앙정보부
- 지제근, 1993, “의학용어의 제정 배경”, 『대한의학협회 의학용어세미나』, pp.1-4.
- 한글학회, 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 서울: 한글학회.
- 허진영, 2000, “남북한 치의학 용어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ang, Sung Ok et. al., 2007, *Fundermental of Nursing*, Seoul: Koonja.
- Huh, Jin Young. 2000, "Comparison of Dental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il, Hea-Keum, Kim, Won-Wok., Kwang, Jung-wan. Kim, Hwang-Hee. 1996, "Comparison of Anesthesiology Related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30(1), pp. 31-40.
- Kim, Joo-Hee. 1998. A Comparative Study of The Health laws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4(2), 321-349.
- Kim, Soon Ja., et. al. 2001, *Fundermental of Nursing*, Seoul: Soomoonsa.
- Park, Hyung-Woo, Yeo In-Sok., Rho Jae-Hun. 1995, "Medical Books Published in North Korea", *Korea Journal of Medical History*, 4(2), pp. 175-177.
- Yang, Sun-Hee., et. al. 2009a, *Fundermental of Nursing I*, Seoul; Hyunmoonsa.
- Yang, Sun-Hee., et. al. 2009b, *Fundermental of Nursing II*, Seoul; Hyunmoonsa.